

# 경제발전과 부유함

2023. 5. 12.

상명대 황상현

## 들어가며...

스미스가 *경제발전*의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별로 검토되지 않았다. 스미스는 (오히려 비서구 세계보다) 영국, 프랑스, 유럽이 직면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고, 이 국가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이해—그리고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혁명의 중심에 (그리고 성장하는 제국주의 세계의 대도시에)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춘, 스미스의 경제 저술의 맥락은 스미스를 경제발전 이론가로 생각하는 것을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사실 주요한 개발경제학자였고, 개발경제학의 주제를 개척했다. 실제로 스미스가 유명한 많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경제적 사고는 개발경제학에 매우 중심적이다.

어떻게 (1) 세계의 부유한 경제에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이해에 맞춰진 주류 경제학과 (2) 개발도상국—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에 집중되어야 하는 개발경제학 둘 다에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 명백한 퍼즐은 적어도 세 가지 뚜렷한 이유로 깊은 미스터리가 될 수 없다. 첫째, 스미스가 18세기에 저술하고 있을 때(그의 경제학에 관한 결정적인 저서인 국부론은 1776년에 출판되었다), 영국과 프랑스—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은 특별히 부유한 경제국이 아니었다. 당시 이들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씨름해야 하는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제도의 선택(예를 들어, 시장경제와 국가의 변혁 기관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생산성을 높이고(특히,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빈곤 발생률을 줄이는(영국의 빈민구제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방법과 수단에 적용된다.

둘째, 스미스의 경제학은 그의 도덕적, 정치적 철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스미스는 그의 두 번째 책, 국부론(WN)이 국부론보다 17년 앞선 1759년에 출판된 그의 첫 번째 책, 도덕감정론(TMS)에서 제시한 철학적 연구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TMS와 WN 사이의 지적 연결은 어느 나라에서나—부유하든 가난하든— 계몽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에 매우 중심적이다. 스미스가 분석한 인간의 동기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뿐만 아니라 규범적 평가의 문제는 오늘날의 영국, 일본 또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브라질, 인도 또는 가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셋째, 개발경제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학보다 훨씬 광범위한 주제이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경제위기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를 강타했을 때, 빠르게 초점이 맞춰진 문제들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경제의 필요성, (사회적 우려뿐만 아니라 신중함도 무시하는) 기대 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억제하는 공공 규제의 역할,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아도 성공적인 경제에서도 궁핍한 사람들의 곤경과 같은 여러 면에서 발전상의 우려였다.

개발경제학을 오로지 가난한 나라나 개발도상국의 경제학으로만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애덤 스미스를 뛰어난 개발경제학자로 보는 근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시장경제

스미스의 선구적인 연구에는 시장경제의 유용성과 창조성, 그리고 왜—그리고 특히 어떻게—그 역동성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스미스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그의 설명은 현대 세계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성공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심적이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경제학의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국부론이 기여한 것은 절대적으로 기념비적이었다. 스미스는 무역의 자유화가 생산의 특화와 분업을 통해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화의 이득, 규모의 경제 및 기술 형성은 무역 및 교환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한다. 특화는 기술 형성과 학습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체 자원 기반을 창출한다. 이러한 스미시언 교훈은 개발경제학에 매우 중심적이며,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관련성이 있다.

##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 누락

스미스는 시장경제를 성공적인 발전에 본질적인 요건으로 삼았지만, 그는 뛰어난 독립적인 수행자로 순수 시장 메커니즘을 취하지 않았고, 또한 좋은 경제성과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윤 동기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시장 메커니즘의 상당한 보완을 추구했다.)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즉각적인 실패는—시장이 하지 않은 채로 두는 필수적인 추구—범함 (commissions)이 아닌 누락(*omissions*)에 있다. 스미스는 교육과 빈곤 구제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게 성공적인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스미스는 또한 시장 메커니즘이 야기할 범함의 몇 가지 오류를 식별할 수 있었지만, 스미스가 특히 초점을 맞춘 시장의 기본적인 한계는 범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누락의 문제였다.

나쁜 경제상황이나 나쁜 공공정책 때문에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시장은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의 잃어버린 소득을 다시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실업자들은 “굶주리거나, 구걸하거나, 아마도 가장 거대한 극악무도의 범행에 의해 생존을 추구하도록 내몰릴 것”이며, “결핍, 기근, 사망이 즉시 우세할 것이다” (WN I.viii.26). 스미스는 시장을 배제한 개입을 거부했지만, 시장이 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을 포함한 개입(특히 예를 들어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전에 가난했던 사람들로 부터 오는 새롭게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량을 가져와 대응하는 대로 두는 것)에 지지했다.

# 빈곤과 국가의 역할

스미스가 시장 메커니즘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해 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게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빈곤, 문맹, 상대적 박탈의 발생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라는 단어나 사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한 그의 작업에서 시장경제의 충분성에 대한 어떤 이론을 (시장의 필요성과 반대로) 노력하여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미스는—단일체의 시장과 이윤 동기의 특이한 지배가 아닌—제도적 다양성과 동기적 다양성을 원했다. 시장들은 그것들의 맥락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것들은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어 생존력과 성공을 위해 다른 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가장 중요하게,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의 과제를 “두 개의 다른 목적”의 추구로 보았다: “첫째, 사람들에게 풍부한 수입이나 생계를 제공하거나, 더 적절하게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러한 수입이나 생계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 국가 또는 연방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공급하는 것” (WN IV.intro.1). 좋은 경제성과와 빠른 경제발전을 위한 스미스의 우선 순위는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 외에도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함했다: 그는 특히 지적이고 인간적인 빈곤 구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그리고 무료인—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 국가와 보편적 교육

스미시언 개발 전략은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는 것의 하나가 아니라, 불우한 사람들의 행복과 자유를 충족시키고 또한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특정 역할을 가진 *시장을 포함하는* 폭 넓은 제도 구조를 갖는 것이다. 스미스가 특별히 중요시하는 국가 개입의 한 분야는 일반적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다. 그는 공교육을 위해 국가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회는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것의 필요성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심지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WN V.i.f.54).

혁명 전략으로서의 보편적 교육의 중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스미스는 18세기 유럽에 널리 퍼진 문맹의 세계에서 선견지명이 있었고 예언자다웠다. 유럽의—그리고 미국의—경험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교육의 만연한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낸다. 그 이해는 또한 아시아의 떠오르는 경제력에 영감을 주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이미 19세기 중반에, 학교 교육의 변혁적인 역할이 일본—아시아에서 근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선구적인 국가—에서 놀랄 만큼 명확하게 보였다. 일본 다음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물론 중국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경제는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주로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기초 교육에 확고하게 집중했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진보를 설명함에 있어, 세계 시장경제를 잘 활용하려는 의지가 적절히 강조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공교육에서 이 나라들의 성취에 의해 크게 도움을 받았다. 만약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없다면 세계 경제에 널리 참여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편적 교육의 빠른 진보와 세계 시장경제의 광범위한 사용을 결합시킨 소위 동아시아 경제발전 전략은 아마도 애덤 스미스가 강력하게 옹호했던 경제진보 및 발전 전략의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 시장경제의 범함 오류

스미스는 또한 시장의 범함 오류에 대해서—매우 흥미로운—할 말이 많았다. 그것은 시장이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운영은 경제의 성과에 심각한 실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스미스의 분석의 그 부분은 또한 급속한 발전을 시작하려는 가난한 나라들과 (시장이 경제 확장과 성과의 일반적인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통해 불안정과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부유한 나라들 모두에게 개발경제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스미스는 정말 생산적인 투자에서 이런저런 거품과 과열 현상으로 자본을 빼앗는 “탕자 및 계획자”의 능력은 한 나라의 투자 자원의 잘못된 할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스미스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 자본의 많은 부분”이 “수익성이 있고 유리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손에서 벗어나 낭비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것들에 던져지는” 길을 쉽게 닦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WN II.iv.14-15).

## 경제발전의 동기적 요구

인간 동기에 대한 스미스의 추정과 다른 종류의 동기의 유용성에 대한 그의 평가를 둘러싼 많은 혼란은 (1) 사람들이 거래를 추구하는 이유와 (2) 거래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을 성공적이고 안정되게 만드는 동기를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스미스가 자기 추구 동기의 적절성에 주목한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사람들이 거래를 구하고 교환을 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익 추구를 넘어 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사의 자비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서 온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에에 전념한다” 고 썼다(WN I.ii.2). 교환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교환을 추구할 이유를 찾기 위해 열광적인 이타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거래에 대한 동기에 관하여 좋은 점이지만—그 자체로 흥미롭지만—그것은 사회의 또는 심지어 시장경제의 성공, 또는 심지어 거래와 교환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기 추구의 적절성에 관한 주장은 아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상호 신뢰와 확신을 포함한 성공을 위한 다양한 가치를 요구한다. 스미스는 “어떤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특정 은행가의 재산, 정직함, 신중함에 대해 그러한 확신을 가지어, 그가 언제든지 그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그의 약속어음과 같은 요구에 따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을 때; 그러한 돈은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 가져질 수 있다는 확신에서, 그 어음은 금화 및 은화와 같은 통화를 갖게 된다” 고 주장했다(WN II.ii.28).

게다가,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넘어 시장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잘 작동하는 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남을 수 있는 빈곤, 문맹, 상대적 박탈의 발생에 대해 깊이 우려했고, 이러한 실패에 관하여 어떤 것을 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사익과 심지어 자기 중심적 신중함의 추구 이상을 요구한다. 스미스는 제도적 다양성과 동기적 다양성을 원했다—단일체의 시장도 아니고 이윤 동기의 단 하나의 우월도 아니다.

## 추론과 습관 형성

스미스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매우 점잖게 행동하고, 평생 동안 상당한 정도의 비난을 피하며, 아마도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승인했던 적정성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만, 단지 확립된 행동 규칙으로 그들이 본 것에 대한 고려에서 행동했다” (TMS III.5.1). “확립된 행동 규칙”의 개발에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가 놓여 있다. 스미스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부패한 행동에 대해서와 같이 사람들의 도덕과 정직에 대한 순진한 신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책임과 새로운 행동 규칙의 향상의 조합은 스미스 시대의 개발 경험에서 만큼이나 —인도에서 브라질에 이르기까지—오늘날 개발 노력에 중요하다.

## 제국주의, 불평등, 그리고 인간성

개발경제학의 주제는 부유한 국가들과 선진국들의 이론가들이 암묵적으로나마 그들의 나라가 실제로 성취한 것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어떤 정책을 따르든 상관없이—전혀 성취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 인종적 또는 문명적 우월감은 오랫동안 제국주의적 지배의 세계에서 발전적 사고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스미스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자질의 차이를 가정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관찰된 성취의 불평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대했다.

스미스는 노예 제도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흑인 아프리카인들보다 백인이 우월한 인종적 자질을 지녔다는 추정에 대한 그의 분노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그의 더러운 주인의 영혼이 너무 종종 부족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정도 관대함을, 이 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온 흑인은 없다” 고 말했다(TMS V.2.9).

스미스는 18세기에 이미 흔한 이러한 종류의 문화적 인종차별이 꽤 경멸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는 “런던의 가마꾼, 짐꾼, 탄광 노동자들, 그리고 매춘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여성들, 아마도 영국 영토에서 가장 강한 남성들과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 뿌리[감자]를 먹고 사는 아일랜드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라고 한다. 어떤 식품도 영양가가 높고, 인체 건강에 특히 적합하다는 이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고 말했다(WN I.xi.b.42).



스미스는 또한 사람들의 운명이 그들의 타고난 장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단호히 저항한다. 반대로, 스미스는—종종 특별한 재능 없이 획득되는—부자들의 운명은 그들이 타고난 자질의 특별한 본질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덜하며;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직업의 사람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다른 특별한 재능은 분업의 효과 만큼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원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와 평범한 길거리 짐꾼 사이의 가장 다른 특성 사이의 차이는 본성에서가 아니라 습관, 관습, 교육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WN I.ii.4).

애덤 스미스가 그를 둘러싼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종주의, 제국주의적 편견, 민족적 속물주의, 지적 오만에 완강히 반대한 것은 스미스가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상가로서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를 말해준다.